

## 2002월드컵축구대회와 한국경찰

### 황 현 락\*

#### I. 머리말

2002년 5월 31일부터 6월 30일까지 약 한 달 동안 60억 지구촌을 뜨겁게 달구었던 세계인의 대축제 월드컵축구 대회는 끝나고, 이제 우리는 일상으로 돌아와 있다. 대회의 성공적인 준비와 진행을 통하여 우리 한국이 세계 4강의 축구강국으로서 위업을 달성하게 되었다. 한국의 5000년 역사속에서 2002년 월드컵대회가 남긴 실로 산술적으로 계산할 수 없는 민족사적인 자긍심이라는 자산은 아직까지 우리 국민가슴에 진한 감동으로 남아있다. 이 국제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오랫동안 안전활동 관련분야에서 노심초사한 경찰의 입장에서는 이 대회에 대한 느낌이 남다르다고 할 수 있다.

2001. 9. 11. 세계를 경악케 한 미국 뉴욕의 항공기 테러사태 이후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치러지는 국제대회라는 점에서 안전을 전적으로 책임진 대한민국 경찰의 입장에서는 월드컵대회의 안전확보가 지상과제가 되어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온 세계가 대회안전에 대하여 우려를 가지고 지켜보는 가운데 단 한 건의 안전사고 없이 완벽하게 대회를 성공시켰다는 점에서 우리경찰은 큰 자부심을 가지게 되었다.

앞으로 2003년의 대구의 유니버시아드, 2010년의 강원동계올림픽 대회·여수 국제해양박람회 등 국제적인 각종 대회의 개최가 확정되었거나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대회도 세계가 테러와의 전쟁을 지속하는 가운데 안전이 지속적으로 위협을 받고 있는 분위기 속에서 치러질 가능성이 높은 편이

\* 전 서울지방경찰청 경비부 근무, 현 경찰종합학교 경무학과장(경정)

다. 최근 2002. 10. 12 인도네시아 발리섬에서도 알카에다와 연관되어있다고 추정되는 대규모의 폭탄 테러행위가 저질러져 수많은 인명이 살상되었다. 이제 국제대회에 있어서 안전확보 문제는 다른 무엇보다도 최우선적으로 해결하여야할 현안사항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는 이번 월드컵축구대회의 준비과정과 그 성과를 최종적으로 정리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새로이 보완하고 보다 한 단계 발전된 안전대책을 위하여 새로이 연구·검토하여야 할 과제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 II. 2002월드컵축구대회 개관

### 1. 대회개요

이번 월드컵축구대회<sup>1)</sup>를 요약하여 살펴보면 주요대회는 '02. 5. 31(금)~6. 30(일)까지 31일간 한국과 일본의 각 10개 도시에서 개최되었다. 한국에서는 서울에서의 개막전을 비롯하여 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수원·전주·서귀포 등 10개 도시에서 개최되었고 일본은 요코하마·오사카·고오베·삿보로·미야기·니가타·오

이타·이바라키·사이타마·시즈오카 등에서 시합이 이루어졌다. 본선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예선전에서 각 지역별로 198개국 이 참가하여 809경기를 통하여 최종적으로 32개국이 참가하여 8개조로 나누어 64경기<sup>2)</sup>를 개최하였다.

### 2. 경찰의 종합치안활동

이 기간 동안 경찰의 종합치안활동은 경찰청 경비국의 월드컵기획단이 주축이 되어 15만 전국경찰이 혼연일체가 되어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를 단계적으로 살펴보면, 종합치안활동의 추진 계획은 기간별로 6단계로 진행되었는데, 각 단계별·시기별로 나누어 종합치안 대책은 [표 1]과 같이 수립 추진되었다.

이 대회를 위하여 행사참여 경찰관에 대한 교육은 각급기관 별로 실시되었다. 경찰청 주관으로 실시한 주요 교육실시 현황을 보면 월드컵시설 부책지휘요원(310명) 교육, 월드컵외국어 회화 교육(1,440명), 특공예비대교육(3차에 걸쳐 총322명), MD등 검색장비 운용요원교육(총189명), 홀리건 전담부대 교육(40개중대 11회 연24,960명), 신변보호대(총102명), 홀리건 감시

1) 이 대회의 공식명칭은 “2002 FIFA World Cup Korea/Japan”이었음.

2) 한·일 양국에서 각각 16개국 팀이 참여한 가운데 각기 32경기를 개최하였음.

조·지원반(70명) 등이 있었고, 그밖에 기능별 교육과 대테러요원 교육(총13회 235명) 등이 있었다.

이 기간 중 동원된 경력은 02. 1. 15~6. 30기간에 1일 평균 11,448명, 연인원 1,911,963명이 동원되었다. 월드컵 대회 전(1.15~5.30)에 동원된 경력은 행사장 및 경기장의 사전안전확보를 위하여 동원되었고, 대회기간 중에는 기존에 투입된 시설경비경력 이외에 기능별 분야별 경력이 투입되었다. 이 기간 중에 특기할 만한 사항으로는 한국팀의 예상외의 선전으로 국민의 월드컵에 대한 열기가 폭발하면서 시청과 광화문등 전국의 도심 수백 곳에서 펼쳐진 길거리응원 인파로 인하여 치안활동 경력이 추가로 필요하게 되었다. 행사기간을 전후하여 전 경찰은 단계별로 경계강화 비상근무를 실시하여 한정된 경찰의 인력과 장비로 안전활동에 노심초사하며 치안활동에 전력을 기울였다.

### Ⅲ. 국제대회안전활동을 위한 경찰의 역할과 과제

경찰의 팔목할만한 눈부신 안전활동의 결과 국제적으로 테러와의 전쟁 등 위험스런 분위기 속에서도 이번 월드컵행사는 세계가 놀랄 정도로 한 건의 사건사고 없이 유종의미를 거두었으며, 이번 국제대회로 한국경찰의 역량을 내외에 과시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주어진 임무에 대한 이러한 경찰의 역할 수행과정에서 제도적으로 연구·발전시켜야 할 미흡한 점은 없었는지에 대하여 이번 월드컵 행사준비를 위해 정부관련 안전대책기구에 파견되어 근무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현안사항별로 나누어 정리해 보고자 한다.

[ 표 1 ] 월드컵종합치안대책 단계별수립활동

단계별	추진기간	중점추진사항
제1단계	00.1.4~01.4.9	조직구성 및 기초개념정립
제2단계	01.4.10~01.8.1	종합치안대책 기본계획수립
제3단계	01.8.2~02.2.15	세부시행계획 수립검토
제4단계	02.2.16~02.4.14	행사기반구축
제5단계	02.4.15~02.5.18	최종점검단계
제6단계	02.5.19~02.6.30	대회경비실시단계

### 1. 안전활동지휘체제상의 경찰의 위상 정립

국제대회시에 경찰의 치안관련 안전활동이 행사의 안전과 대회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요소임은 다른 설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러나 정부의 행사안전의 준비기구에 참여하여 경찰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안전활동 협조체제상의 기본여건이 다른 나라(특히 일본의 경우)에 비교하여 볼 때 개선의 여지가 많은 점이 사실이다. 안전활동의 기본지침의 설정과 운영, 경기장이나 행사장의 각종 안전요소(경찰·소방·군등)를 경찰이 치안확보의 책임을 진 부처로서 사전에 기본법령(2002월드컵대회 및 아시아대회 지원법)제정차원부터 사전에 효율적으로 치밀한 연구와 대응이 있어야했다는 아쉬움을 지울 수가 없다. 최소한 경찰의 안전활동을 실시하는 범위내에서는 전적으로 경찰의 권한과 책임하에 치를 수 있었으면 하는 점이 그것이다.

### 2.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활동 강화

각종 국제대회의 안전활동을 위해서는 긴밀히 협조하고 공조를 하여야 할 유관기관이 많다. 즉, 테러분자의 검문검색을 위해서는 출입국관리차원에서 법무부, 대테러 관련 정

보확보차원에서는 국가정보원,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위해서는 행정자치부(소방본부), 식약품안전관리 업무를 위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청, 해양대테러안전활동과 불법입국자 검색을 위해서 해양경찰청, 대테러부대의 운용과 군관련 작전협조를 위해서는 국방부 등 행사안전과 관계된 유관부서와의 업무협조와 조정의 문제는 대회의 안전을 위해 갖추어야 할 기본요소라는 시각이 필요하다고 본다.

### 3. 사경비의 육성과 활용

국제대회의 안전 확보 책임은 최종적으로 국가가 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행사안전의 참여자로서 대회의 원활한 진행과 안전확보의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행사장내의 안전확보를 위한 기본인력의 운용은 수익자부담의 원칙상 행사주관기관이 해결하여야 할 사경비영역의 몫이다. 유럽과 일본에서 사경비가 매우 활성화 되어있으며 이들의 협조와 행정지도를 통하여 경찰은 본래의 목적을 불필요한 마찰없이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번 월드컵 행사기간 동안에 FIFA의 주관에 의하여 이루어진 대회운영에 한국월드컵조직위원회에서 사설용역업체<sup>3)</sup>를 행사에 동원하였더라면 경찰의

3) 유럽 등 외국의 경우는 대부분 사설경비업체를 활용하고 있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며, 일본은 이번 월드컵축구대회에서도 경기장이나 행사장에서 용역경비를 활용하였음.

근무여건과 위상이 더욱 제고되었을 것이고, 경제적인 면에서 보더라도 많은 국가예산이 절약되었을 것으로 본다.

#### 4. 행사안전활동 전문가 양성

국제대회를 개최하고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경찰의 전문적인 안전활동이야말로 행사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기본요소라고 보아도 틀린 말이 아니다. 특히 국제대회에 있어서는 행사주관기관의 노하우를 잘 이해하고 국제적인 관행과 협약에 따라 국익을 극대화하는 차원에서 경찰의 안전활동의 전문가가 양성되어 있어야 한다. 만일, 국제적인 감각을 도외시한 채, 우리나라만의 특수성을 고집하거나 행사의 운영에 차질을 주는 경직된 안전활동이야말로 자칫하면, 외교문제나 국가기관의 손해배상문제 등 책임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 소지를 충분히 안고 있다. 앞으로 있을 국제대회의 행사안전의 준비를 위해서는 국제적인 관례와 관련 조약 및 법규를 충분히 검토하고 관련 당사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서 한국경찰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하여야 한다.

#### 5. 중장기적 과제 선정과 추진

국제대회의 행사준비를 위한 안전활동은

기본지침이 되는 근거법률의 제정에서부터 출발한다. 이러한 기본법안의 제정과 운용을 위해서는 정부 각 부처에는 대회의 안전활동을 실시함에 있어 각부처의 입장을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 예상되는 상황과 문제점을 오랫동안 사전에 충분히 연구하여 보다 합리적인 대안을 가지고 법안을 만들었고, 이에 따라 정부부처간에 협의를 거쳐 안전활동의 조직과 기구를 갖추어 추진한다. 지난 86년의 아시안 게임, 88년의 세계 올림픽 대회, 94년 대전 엑스포대회, 2000년 아셈 정상회의, 2002년 이번 월드컵대회, 그리고 2002 부산아시안 게임 등 계속되는 국제대회의 안전활동을 수행하여 오면서, 경찰의 안전활동을 위한 중장기 과제 발굴과 이에 따른 효율적인 추진대책에 미흡한 점은 없었는지 되돌아 보아야 할 시점이라고 본다.

### IV. 맺는 말

이제 2002월드컵 축구대회는 끝났다. 우리나라는 이 대회를 21세기 아시아 최초로 가장 안전하고 모범적인 대회로서 성공적으로 마무리지었다. 국제적으로는 국가 이미지의 쇄신과 신인도를 높여 아시아의 중심으로 우뚝 설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국내적으로는 IMF사태 이후 외환위기로 위축되었던 사회분위기를 일거에 일신하고, 한국축구가

범국민적인 응원 속에 월드컵 4강의 신화를 이룩함으로써 지역간·세대간·계층간의 벽을 깨고 국민대통합의 장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월드컵대회기간 전후를 통하여 사회안정적 발전과 국민대통합의 장을 마련하

고 국운융성의 출발점이 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우리 경찰은 이제 이러한 자긍심을 바탕으로 이러한 국가의 위상에 걸맞는 조직 발전을 위하여 내실을 착실히 다져나가는 데 힘을 모아가야 할 때이다.